

<세션5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우리의 노력>

이석용 | 한국해양진흥공사 DX전략실장

해상무역은 30년간 3배 성장했다. 이제는 탄소중립과 연료전환의 시대로 향하고 있다. ESG 기조 아래 이뤄지고 있는 국제 규제를 해운 금융산업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공시는 이제 자본 흐름의 언어이다. 해운의 전환은 곧 국가경제력으로 규제는 리스크가 아니라 자본배분의 새로운 지도가 될 것이다.

KOBC는 중장기 3대 전략 방향을 설정해 공공해양금융을 통해 해운산업의 안정과 친환경 전환을 선도하며 데이터기반의 신뢰 체계를 구축하는 지속가능 해양경제플랫폼을 실현하고 있다. 자본, 자연, 사람, 신뢰의 네 축으로 지속가능한 전환을 추진하며 △산업안정화·금융지원 △친환경·디지털 전환 선도 △상생·안전·사회가치 강화 △공공기관 ESG·글로벌 협력 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KOBC가 주도하는 공공해양금융은 자본과 데이터, 거버넌스가 만나는 설계로 친환경 선박·연료·항만 인프라 전환을 촉진하는 전환금융 체계다. 공공이 리스크를 흡수하면, 민간은 전환을 가속한다.

항만·항로 기반 자연자본 리스크 평가 및 복원금융을 확장해 생태의 가치가 자본의 언어로 번역되는 금융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지역상생과 안전이 지속가능 산업의 기초이기에 KOBC는 중소선사·선원·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전환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뢰도 높은 데이터 ESG 운영체계를 설계 중이다.

KOBC는 해양산업전환의 ‘자본설계자(Capital Architect)’로서 앞으로도 공공·민간·국제자본을 연결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해 갈 것이다. ‘더 빠른 감축, 더 강력한 회복력, 더 넓은 포용’으로 대한민국 친환경 해양수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